

한국전통장신구의 문화원형 -백제 무령왕릉 유물을 이용한 도자장신구 개발-

Vernacular of Tradition Korean Jewelry

- This study is Focused on a Ceramic Accessories Development of Baek-Jae Muryong Roayl Tomb-

김성민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세라믹전공

Sung-Min Kim(min381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백제 무령왕릉 유물에서 장신구 문화원형을 디자인 소스화 하여,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장신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백제문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응용하여 전통성, 실용성, 예술성을 가미한 도자장신구를 제작하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백제 무령왕릉 전통 유물에서 장신구 소재를 찾아, 충남 공주 지역의 대표 문화유적·유물인 무령왕릉의 문화원형으로 도자장신구로 개발하여, 문화상품으로써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려 한다.

■ 중심어 : | 무령왕릉 유물 | 도자장신구 |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a relic of "Baek-Jae Muryong Roayl Tomb", as an inheritance, and craft work of a modern accessories Art. Based on a conceptual design and component of relic ceramic accessories from "Baek-Jae Muryong Roayl Tomb" is one of our cultural heritages, a creative work is to present a several kinds of applicable ceramic accessories in our real life. Accordance of valuing three factors as above, seeking the productivity idea from traditional cultural goods with the originality has a potential to expand to global market, because the regional representative cultural relic and remains goods of Gong-Ju, Chungnam can be developed as cultural good of regional, and cultural indigenous product. In conclusion, a property matter of soil and diversity of visual presentation that is corresponding to recognizable design particular idea.

■ Keyword : | Baek-Jae Muryong Roayl Tomb | Ceramic Accessories |

1. 서론

1. 연구목적

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축적된 것으로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 언어, 예술, 종교, 지식, 도덕, 풍속, 제도 등을 포함하며 철학에서는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진보·향상 하려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 또는

"본 논문은 2007년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 사업연구비(신진교수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0211-002

접수일자 : 2008년 0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3월 28일

교신저자 : 김성민, e-mail : min3812@hanmail.net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인 성과를 말한다. 세계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각 나라 고유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고 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지금 우리는 이미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의 선두에서 있을 만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또한 빠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재창조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이미 세계는 국가경쟁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일반 공산품보다 문화상품 경쟁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문화는 상품화 되어 일반 무역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동안 제작된 우리의 문화상품은 일부 문화제를 그대로 복제했거나, 과거와 현대의 미감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면만 강조된 부분이 컸다. 전통문화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기법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조화롭게 디자인 한다면 성공적인 문화상품이 탄생되리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백제 무령왕릉 문화원형에 대한 전통성, 실용성, 예술성 가미하여 디자인 소스로 정리 하였다. 둘째, 백제 문화권을 대표하는 문화원형 중에서 무령왕릉 유물을 중심으로 문화상품을 연구, 제안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의 활용방안을 제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백제 무령왕릉 유물에서 문양 및 형태를 디자인소스화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장신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 및 연구 자료를 통한 특성을 이해하고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유물을 직접보고, 형태적인 자료를 이해한다. 둘째, 문헌 조사를 통해 백제 무령왕릉 문화원형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및 의의, 특징 등을 알아봄으로서 백제인의 공예예술과 문화의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응용한 현대장신구를 제작한다. 셋째, 백제 무령왕릉 유물 가운데 주로 왕·귀족들이 착용한 금·은 장신구를 바탕으로 현대적인으로 재구성하여 도자장신구 문화상품화의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전체적인 연구범위는 백제 무령

왕릉 문화원형의 문화적, 미적 요소가 담긴 장신구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무령왕릉 유물 중에서 왕과 왕비의 목관재와 장신구류, 부장 유물 등 중에서 금제 뒤꽂이, 금제 목걸이, 은제 팔찌를 비롯하여 허리띠 등의 금속 장신구 등을 중심으로 백제유물을 현대적 장신구로 디자인한다. 넷째,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II. 본론

1. 무령왕릉 유물의 가치

1971년에 1442년간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침묵하던 무령왕릉이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면서 백제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약 2,600여 점의 찬란한 백제문화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우연히 밝혀진 고분으로서 백제뿐 아니라 고대의 역사나 미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대두되었다. 연대측정이 불가능했던 삼국시대의 여러 고분들이 무령왕릉의 출토품을 기준으로 연대순으로 역사를 편찬함이 가능해 졌으며 출토유물 수가 적어 고구려나 신라의 연구보다 뒤질 수밖에 없었던 백제역사, 백제미술사 연구에 더 없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백제는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를 거치면서 유물·유적을 남겼으나, 각 지역에서의 수도 유지기간이 짧았고, 무덤의 구조 중에서 석실분(石室墳)이 많았던 점, 그리고 나당연합군에 의한 국가의 패망 등의 불운으로 도굴이 일찍부터 성행되어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다. 발굴된 지 30여년이 흐른 현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진 핵심적인 내용에는 지식의 경우 기록된 명문의 내용이 매우 함축적이고 꼼꼼하지 못하고 간략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 고사서 중의 하나인 삼국사기에 기술된 백제 무령왕 시대에 기술된 내용과 지식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삼국사기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출토유물의 대부분이 무덤의 축조시기와 피장자(彼葬者)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동일시기에 속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유사 유물의 편년 기준자료가 되고 있다. 출토 유물 중에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진 귀걸이를 비롯한 금속공예품의 경우는 높은 품격과 고도의 제작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 백제 장인들의 예술적 감성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수준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또한 중국도자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무령왕이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백제 사회의 국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릉의 부장품은 웅진 도읍기 말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 무령왕의 임기를 전후하여 백제문화의 성숙기였다. 무령왕릉 출토 금속공예품은 왕실 부장품이라는 특성상 당시로는 가장 진보적인 역량과 정성을 동원하여 제작하였겠지만 개개의 작품이 지니는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제작기술과 참신한 조형감각은 신라, 고구려와는 또 다른 백제적인 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의 수는 2600여 점인데, 그 가운데 무령왕과 왕비의 각종 장신구가 주목을 끈다. 장신구류로는 무령왕과 왕비의 관식(冠飾), 귀고리, 팔찌, 목걸이, 뒤꽂이(쪽진 머리 뒤에 뒤꽂는 장식품), 신발, 곱은옥(고부라진 모양인 장식용 구슬)장식, 꽃 모양 순금 장식등이 있다. 이들의 제작 기법 및 형태는 고구려나 신라의 장신구와는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무령왕릉의 발굴은 우리에게 백제 문화의 찬란함을 확인하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한국 고분 발굴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2].

2. 무령왕릉 장신구의 특징을 디자인화

왕의 유품으로는 금제 관식(冠飾), 금제 뒤꽂이, 금제 귀걸이, 목걸이, 베개, 금동신발, 용봉문 환두대도 등이 있으며 왕비의 유품으로는 금제 관식(冠飾), 금제 목걸이, 금제 귀걸이, 은제 팔찌, 금동신발, 베개, 장도 등이 있는데[3], 본 논문에서는 무령왕릉 유물 중 장신구 중심으로 특징을 디자인화 한다. 디자인 소스 방법으로는 먼저 각각의 선정된 유물에 대한 역사 및 형태에 대한 분석을 하고 편화적 이미지 추출한 후 디자인으로 요소로 주제적인 형태를 이미지화하고 제작 한다. 여기에 흠에 물성적인 성격을 최대한 살려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추하려한다. 이에 다소 금속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둔탁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자연적인 흠

의 친화적인 따뜻함을 더욱 강조하려한다.

2.1 금제 관식(冠飾)

왕과 왕비의 관모(冠帽) 등에 부착하던 금관(金冠)장식으로 백제의 금속 공예술이 결코 신라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 미술품이다. 실제로 금관을 오래 만들었으며, 왕의 관식(冠飾)[그림1]은 인동(忍冬) 무늬를 기본으로 하여 꽃가지에 날개장식을 달았고, 중앙의 연화대(蓮花臺) 위에 꽃병 모양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한 독특한 모습이다. 왕의 관식(冠飾)은 역동적 곡선을 지어 동적인미를 나타내는 남성적인 활동성을 보이며 자유분방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표현기법을 적용해 백제의 독창성이 보이며 특히 화염무늬는 태양을 상징하므로 무령왕의 권위에 합당한 모티브를 적용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왕비의 관식(冠飾)[그림1]은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 및 제작방법에 있어 왕의 관식과 유사하나 크기가 작고 달개장식이 없어 간결하지만 정적인미와 여성스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중앙의 형태에서 막 피어오르는 꽃을 뜻은 보병(寶瓶)을 표현하고 있어 불교적인 요소가 관식의 제작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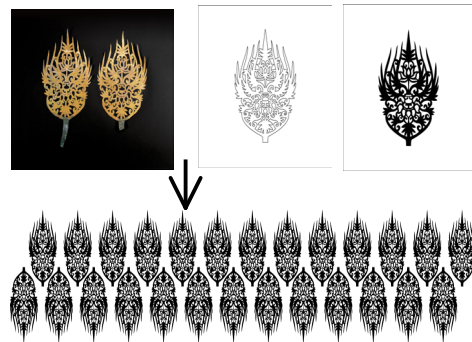


그림 1. 왕비의 관식(冠飾)디자인 소스

2.2 금제 귀걸이(耳飾)

금제 귀걸이는 백제 귀걸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뛰어난 세공기술이 발휘된 것으로, 신라의 금속 공예술만큼이나 웅장하다. 특히 금 알갱이나 금선을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누금세공(鏤金細工)기법

으로 제작되어 웅진시기 백제의 뛰어난 금세공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귀걸이들은 백제 귀걸이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작품으로, 화려한 장식법과 구성 등에서 신라 귀걸이와 비슷한 점을 보인다. 왕의 귀걸이[그림2]는 세환(細環)에 두 가닥의 장식이 달려있고 한 가닥은 작은 고리로 원통형 장식을 연결했다. 그리고 작은 고리로 커다란 심엽형(心葉形)장식을 만들었다. 왕비의 귀걸이는 큰 고리에 다시 작은 고리를 매단 뒤에 얇은 청색의 고운 옥으로 중간 부분을 장식하고 끝 부분에는 네 날개형 장식을 매달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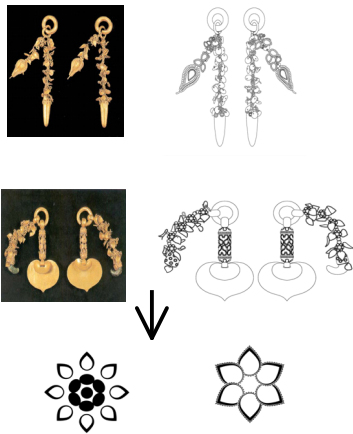


그림 2. 왕과 왕비의 귀걸이 디자인 소스

2.3 목걸이

왕의 목걸이는 탄화목(炭火木)을 장기알 처럼 깎고 그 테두리에 금판을 감은 것 수십 점을 이어 만든 탄목금구(炭木金具)목걸이[그림3]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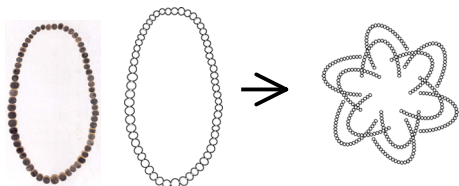


그림 3. 탄목금구 목걸이 디자인 소스

왕비의 목걸이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아홉 마디로 되어 있는 구절목걸이(九節頸飾)는[그림4] 마디 하나의

길이가 6cm정도로 되어 있다. 각 마디 양끝은 끈처럼 가늘게 늘려서 연결하기 위한 고리를 만들고 서로 연결하고 남은 고리는 그대로 다시 다른 마디에 6~8 회씩 휘어 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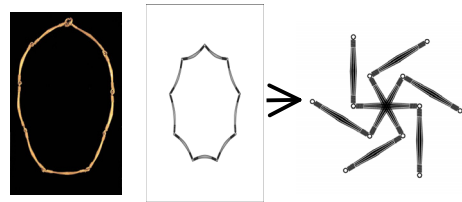


그림 4. 구절목걸이 디자인 소스

끝은 다시 목걸이 몸체에 다섯 바퀴 정도 정교하게 감아서 마무리 짓고 있어 간결한 세련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왕비의 백제의 꾸미개에서 종종 보이는 방식으로 백제 특유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칠절목걸이(七節頸飾)가 있다[그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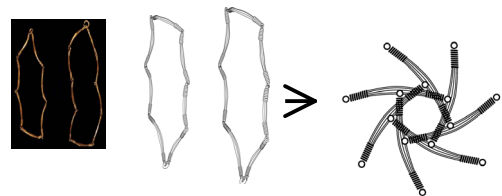


그림 5. 칠절 목걸이 디자인 소스

또 왕과 왕비의 금구슬 목걸이가 있는데 속이 빈 공모양 형체를 만들고 다시 여러 개의 금알갱이들을 누금(纒金)하는 기법으로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었다. 구슬들은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실로 꿰어 연결할 수 있다[그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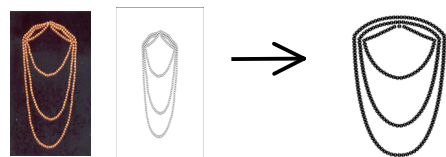


그림 6. 왕비의 목걸이 디자인 소스

2.4 금제 뒤꽂이

귀고리와 아울러 왕비의 머리에 꽂았던 금제 뒤꽂이가 머리 장신구로써 금속공예의 화려함을 더해준다[그림7] 그 길이가 18.4cm이며 전체 모습은 역삼각형으로 상부가 새 날개 형상을 하고 있다. 뒤꽂이 머리 부분을 날개를 펼친 금판을 누르고 두드려 화형(花形)과 당초문(唐草文)을 나타내며 그 아래는 T자형으로 선을 굵고 초화문(草花文)을 새겼으며 머리에 꽂는 아래 부분은 가늘게 세 개의 발이 가지처럼 나누어져 있다. 중간 부분에는 양분되어 두 줄기의 당초문양을 대칭적으로 표현하여 화사하고 세련된 외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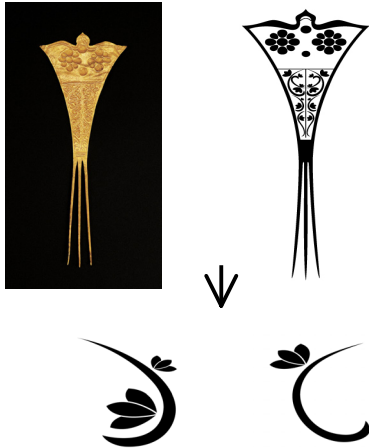


그림 7. 금제 뒤꽂이 디자인 소스

2.5 팔찌

다리작명(多利作銘)은 제팔찌는 7cm로서 팔찌에 명문이 새겨 있는 것으로 백제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그림8]. 팔목에 닿는 부분은 톱니 모양으로 촘촘하게 새겨져 있고 바깥면에는 혀를 길게 내밀면서 머리를 뒤쪽으로 돌리고 발톱이 3개인 두 마리의 용이 막 꿈틀거리듯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는데, 그 숨씨에 힘이 있어 목직한 팔찌와 잘 어울리고 있다. 발톱과 비늘이 섬세하게 표현된 한마리 용의 꼬리가 다른 용의 목 밑으로 들어가 포개어진 채 바깥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순은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 기풍이 매우 우아하다. 금봉이 휘어져 있으며, 외면으로는 V자 형태의 홈을 깎아 거치형(鋸齒形)으로 수식하고 있으며 내면은 평평하게

되어있다. 이 팔찌는 백제 지역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형태로 간소하면서도 균형미가 있다. 어른의 팔목에 끼우기에는 너무 작다. 아마도 왕비가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팔찌[그림10]와 은제 팔찌가 있다. 무덤에 묻혔거나 왕비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이 가지고 있던 팔찌로 왕비의 무덤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8. 다리작명은제팔찌 디자인 소스

2.6 허리띠

총길이는 95.7cm로 금과 은을 사용하여 만든 허리띠 장식이 있다[그림9] 드리개를 갖춘 허리띠와 드리개와 띠 끝장식이 없는 허리띠 2벌이 있는데, 무령왕이 사용했던 허리띠는 여러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대금구에 장식되어 있는 심엽형(心葉形)으로 투조된 문양, 허리띠 수식(垂飾), 마무리 부분에 매달았던 금판 두꺼비와 귀면(鬼面)·주작(朱雀)·백호(白虎) 등과 같은 사신도 문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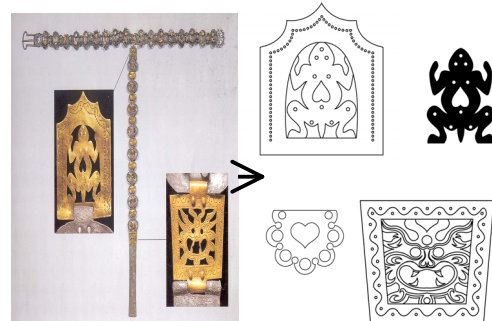


그림 9. 왕의 허리띠 장식 디자인 소스

3. 무령왕릉 유물에 나타나는 문양 및 형태적 특징

백제 무령왕릉 유물은 고구려나 신라에 비하여 문헌 기록 및 유물이 풍부하지 않아 고구려, 신라의 유물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문양은 단지 아름다움만 갖는 것이 아닌 인류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조형미술의 원천으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인간의 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므로 민족의 미의식의 특징과 변천을 그대로 설명한다. 우리의 전통문양 중에서 고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양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무령왕릉 유물에 나타나는 문양 및 형태에서 보여지는 백제의 특징은 신라나 고구려에 비해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분위기를 띄고 있다. 제작 기술에 있어서는 신라나 고구려, 백제가 비슷하게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무령왕릉 유물의 온화한 분위기는 백제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유물의 성격에 따라 문양의 소재는 양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유물에서 나타나는 재료, 제작 기법, 또한 정신적인 면도 추측할 수 있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구체적이고 귀중한 자료가 된다. 문양의 기본 소재는 크게 식물무늬 계열과 동물무늬 계열, 그리고 추상적 무늬 계열로 구분된다. 식물무늬는 구체적으로 왕과 왕비의 관장식, 그리고 금제 뒤꽂이에 인동당초문 및 화염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인동당초문은 인동덩굴 잎의 모양을 본뜬 무늬로 매우 유연한 울동감을 보여주며 세련된 필치를 보여준다. 주로 좌우대칭형이며 형태와 기능성을 강조하는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단순한 조형미를 추구하며 인동당초의 자연적인 소재로부터 기하학적인 선을 갖고 있다. 왕의 관식(冠飾)의 화염문은 타오르는 불꽃을 묘사한 무늬로 불꽃무늬라고도 한다. 이 화염문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백제가 고구려부터 북조 문화와 불교문화 및 한(漢)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10. 왕의 관식(冠飾)의 화염문은 타오르는 불꽃을 묘사한 무늬

또한 왕비의 관식중앙에는 막피어 오르는 꽃을 뜻하는 보병(寶瓶)을 표현하고 있어 불교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다리작명

다리작명(多利作銘)은제 팔찌에는 비늘까지 뚜렷한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에는 긴 혀가 나와 있으며 머리에는 바람에 날리는 듯한 뿔이(銘)뒤로 젖혀져 있고 발은 제팔찌 무늬 3개인두 마(多利作)리의 용이 막 꿈틀거릴 듯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는데 그 솜씨에 힘이 있어 목직한 팔찌와 잘 어울리고 있다. 발톱과 비늘이 섬세하게 표현된 한 마리용의 꼬리가 다른 용의 목 밑으로 들어가 포개어진 채 바깥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용의 형태는 중국과 서는 6세기에, 고구려에서는 6~7세기에 나타나는 문양의 한 형태이다[2]. 그러나 백제의 유물을 통틀어 용이 사용된 예는 매우 드물다. 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궁중에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리 잡은 상상의 동물이다. 용문은 각종 장신구류, 즉 금관이나 팔찌 등에 새겨져 있는데 이는 왕권과 결합된 상징으로 쓰였다. 허리띠장식에는 두개의 금관에 도깨비무늬, 두꺼비무늬가 새김 되어 있고 장방형 은판에는 주작(朱雀), 백호(白虎) 문양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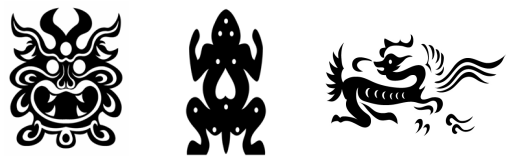


그림 12. 도깨비무늬, 두꺼비무늬, 백호(白虎)문양

두꺼비, 도깨비무늬, 주작, 백호의 문양 가운데 두꺼비와 도깨비는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깨비문양은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에 백제, 신라, 가야에서는 5세기 이후에 등장하며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2][3]. 두꺼비문양은 대부분 고구려 고분벽화에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무령왕릉 유물의 문양으로는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무령왕릉 유물 중 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은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양을 보이고 있다. 그 표현이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나타내며 이러한 문양으로 자연적, 지역적, 역사적, 종교적 상황의 특성을 알 수 있으며, 백제인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다.

III. 결론

문화원형에서 공예라 함은 민간에 의해 전하여 내려오는 원재료를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는 조형제품으로서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공예의 특성을 가진 제품[4]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예품이란 과거에서 전승된 기술과 생산방법, 또는 현대에 새로이 개발된 기술, 기법, 재료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술적, 장식적, 실용적 특성을 지니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생활용구, 장식품, 기호품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예산업은 문화적 특징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화적 특징이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성격이 강한 미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공예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수공예 제작방식을 거쳐 실생활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예술분야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다. 전통적 문화와 민족 고유성을 표현하는 예술성이 가미된 공예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현대인의 소득수준 및 문화생활에 비례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1세기는 각 국가와 민족들의 문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열거하였듯이 한국전통장신구의 장점은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문화원형 개발로 인한 문화권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문화원형의 발전적인 요소로 다음

과 같이 몇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보았다. 문화원형의 발전은 다음의 요건이 요구된다. 세계화 될 수 있는 것. (International), 문화적인 것. (cultural), 전통적인 것. (traditional) 이러한 것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 한국적인 문화상품, 문화콘텐츠산업, 패션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무령왕릉의 전통 유물에서 그 소재를 찾아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세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문화권의 대표문화유물·유적을 모티브한 문화상품 개발은 지역·문화적 특산품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물의 형태와 문양을 통한 다양한 표현으로 개성이 돋보일 수 있다는 점에 부합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및 기능의 문제점을 보완, 시장성에 대한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무령왕릉 장신구 문화원형이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재료는 도자를 선택하였다. 재료의 물성이 전통성과 시장성에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재료비가 저렴하여 판매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소스를 통한 이미지로 도자기로 장신구를 제작하여 보았다. 제작이 수월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깨진다는 단점으로 인한 문제점은 있으나, 문화상품으로써의 생산단가 낮아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제작 방법의 수월성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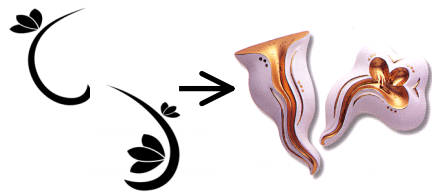


그림 13. 금제뒤꽃이를 형태를 이용한 브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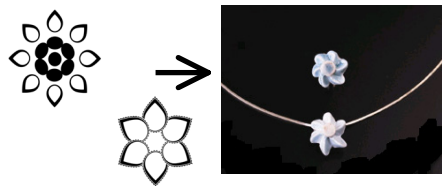


그림 14. 왕비의 귀걸이 형태를 이용한 목걸이



그림 15. 왕비의 목걸이를 형태를 이용한 목걸이

본 논문은 무령왕릉 유물 중 장신구를 통해 지역의 공예문화상품의 영역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적인 문화산업과 공예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속적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무령왕릉 문화원형의 전통성, 실용성, 예술성을 디자인에 가미하여 디자인 소스를 유추하였다. 둘째로 지속적인 문화상품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 자료에 대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 자료에 대한 자료화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좋은 자료를 통하여 좋은 디자인 요소를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의 활용을 통한 활성화 제시하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각인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논문에서 많은 것들이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의 방법적인 부분과 결과적인 도자장신구를 보면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에 앞으로 많은 문화상품이 개발되고 제작되어서 지역 문화상품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한다.

[6] 이우희, 한국전통문화 고찰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 방향 연구, 2002.

저 자 소 개

김 성 민(Kim Sung Min)

정회원



- 1998년 2월 :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산업공예학과전공(산업도자 석사)

- 2002년도 : 한국도자장신구협회 회원

- 2004년도 : 한국공예학회 회원

- 2004년 :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 현재 : 공주대학교 교수(세라믹디자인전공)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개발, 공예문화 마케팅

참 고 문 헌

[1] 전창범, 아름다운 한국 공예의 역사, 학연문화사, 2002.

[2] 최준자, 장신구의 세계, 예경출판사, 1992.

[3]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인과 服飾, 국립부여박물관, 2005.

[4] 백제문화연구소,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95.

[5] 박현택,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의 디자인개발과 활성화 방안", 1999.